

## 韓 · 日 民家の 平面構造 比較研究\*

張 保 雄\*\*

한국과 일본은 대한해협과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리고 고대에 선박으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문제는 일기만 청명하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의 일본은 한반도와의 문화적 교류와 주민의 이동이 많았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를 직접 그들에게 전수시켰고, 일본으로 건너간 많은 주민들은 일본의 상류층을 형성하였고 그리고 원주민을 지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다방면의 많은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주민들은 한반도에서 거주하던 민가를 그대로 일본 열도에 재현하였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민가는 평면의 구조 면에서 차이점 보다는 유사점이 많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점은 현시점에서의 관점이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유사점은 공통점으로 전환될 것이다. 일본은 19세기 말에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민가도 부분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한국의 민가 중에서, 특히 곁집은 그 구조가 일본 민가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主要語 :** 민가의 평면, 곁집, 홑집, 마루, 마구, 문화 확산

## 1. 서 론

## 1) 연구 동기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 부산의 태종대에서 육안으로 일본의 對馬島를 볼 수 있으며, 대마도의 남단에서는 壹岐섬이 보이고, 壹岐섬에서는 九州가 병풍처럼 확연히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대에 선박으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문제는 일기만 청명하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의 일본은 한반도와의 교류가 많았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의 수준 높은 문화를 직접 그들에게 전수시켰고, 또 한반도에서 많은 流民도 건너가서 일본의 상류층의 일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기

까지 한반도에서 다방면의 많은 문화를 수용하였고, 그것도 한반도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직접 바다를 건너 일본에 우리의 문화를 전파한 경우가 많았다. 한·일 양국의 민가는 평면의 구조 면에서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점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의 관점이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사점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19세기 말에 명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민가도 변하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민가, 특히 곁집에는 과거 일본 민가의 구조 및 형태의 일부가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민가를 연구하는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일본 민가의 실체를 상세히 구명하는데 있어서는 일찍이 많은 연구를 하였고, 훌륭한 업적도 쌓았으나, 그들 민가의 기원에 관한 문제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히 그들 민가와 공통점이 가장 많은 한국 민가와와의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복 전에 한국을

\* 이 논문은 1991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진흥재단 해외과건 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다녀간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 중에는 한국의 겹집을 보고 일본의 민가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한국민가를 예찬한 학자도 있었으나 그의 著作物에는 이러한 내용을 일체 게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편협되고 편파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對韓觀은 보이지 않게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983년 1월에 일본의 大阪에 있는 국립민족학 박물관에서 개최된 「日本 民族文化의 源流에 관한 比較 研究」(부제: 일본 민가의 원류)라는 심포지움에 필자가 초청되어 「한·일 민가의 비교」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심포지움에 참석한 일본인 학자들은 건축학·고고학·민속학·민족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수 참석하였고, 외국인 학자들은 한국·중국·프랑스·스위스 등지에서 초청되었다.

일본 민가의 원류와 계통에 관한 심포지움인데도 대부분의 일본인 학자들은 그들의 민가에 관한 원류를 한반도의 민가와 관련시켜서 찾으려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피하였고, 어떤 일본 학자는 일본 민가의 원류를 서남 아시아의 이란에서부터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많은 流入民이 있었고, 이들은 그들이 한반도에서 살림집으로 사용하던 집을 머리에 넣고 일본으로 건너가 그 머리 속의 집을 그대로 일본에 재현했고, 다만 풍토의 다름에 따라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면서 오늘의 일본 민가의 유형을 형성했던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편견과 고의적인 왜곡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이고 한반도의 민가와 비교적인 방법을 援用하면 일본 민가가 원류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해답을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일본 민가의 계보를 설명해 주는 일련의 사술에서 잃어버린 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에 분포하는 민가를, 특히 겹집을 조사하고 연구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張保雄, 1984).

한반도가 일본 열도와 멀리 분리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면 양국의 민가에서 공

통점은 문화의 확산과 관계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명되고 진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 일본 민가와와 구조와 기능이 매우 유사한 민가가 있다면, 이 현상을 우연의 일치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명되어 진화한 결과로 설명하기보다는 동일 기원의 전파에 의한 결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일본 민가에는 한국적 요소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동남 아시아, 중국, 북방 대륙, 그리고 태평양 연안 지방 등지의 영향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 민가에서 대표적인 廣間型과 田字型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流入民과 함께 흘러들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민가의 한반도 기원설을 제기하는 바이다.

## 2) 연구 목적

한·일 양국 민가 평면의 비교에서 그것들의 공통점과 유사점은 동일 기원의 전파에 의한 결과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민가 평면의 廣間型과 田字型의 기원지가 한반도라는 것을 양국 민가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비교하면서 밝히고자 한다. 한국의 겹집 평면은 중국의 漢族 민가에도 없는 한국 고유의 특유한 형식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가의 평면이 일본 열도에서 廣間型과 田字型으로 나타난다. 한·일 민가의 평면을 현시점에서 비교 고찰하면 부분적으로 차이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본인이 한반도의 민가를 수용한 이래로 장기간에 걸쳐 변형시킨 결과이다. 그러나 양국 민가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일 민가의 평면과 그 구성 요소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민가의 특질을 더욱 확실하게 밝히고, 일본 민가에서 한국 민가와와 유사성 내지 공통성을 밝히려고 한다. 한국 민가 중에서 일본민가의 요소 또는 남방적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문제도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남방에서 한반도로 거주 문화가 유입된 사실도 제주도 민가에서 구명하려고 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국 민가의 구성 요소 및 그

기능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명하며, 분포 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民家型의 지역적인 형성과 그 확산 경로를 추구하는 문화지리학적인 연구 방법도 원용하였다. 비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가의 요소 중에서 평면은 어느 요소보다도 장기간 지속되고 쉽게 변형되지 않으므로 한국민가의 겹집 중에서 5실형과 일본의 廣間型을 대비하고, 한국의 4실형과 일본의 田字型, 그리고 한국의 側入 民家和 일본의 妻入 民家の 평면을 기능과 분포지역의 면에서 대비하고 분석한다.

둘째, 양국의 민가에서 馬廐의 구조와 위치를 비교하면서 內廐式과 外廐式으로 분류하고 그 분포 지역을 비교한다.

셋째, 한국의 민가에서 마루가 있는 민가와 마루가 없는 민가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마루가 없는 민가는 일본의 민가와 유사하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밝힌다.

넷째, 한국 민가에서 특유한 난방 장치인 온돌과 일본 민가의 대표적인 난방 장치인 이로리를 비교하고, 일본에 온돌 문화가 전파되지 않은 이유를 고찰한다.

다섯째, 제주도 민가에서 볼 수 있는 別棟型을 일본 서남 제도의 別동형과 비교하고, 제주도의 別동형은 난방 문화의 전래에 의한 소산이라는 것을 비교 고찰한다.

한국 민가에 관한 자료는 필자가 20년 이상 연구 답사를 통해서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며, 일본 민가에 관한 자료는 필자가 4차례 걸친 일본의 현지 조사와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 2. 평면의 비교

미국의 인류학자 C. Wissler와 A.L. Kroeber 등이 말하는 文化 領域의 개념은 문화지리학에서는 文化景觀 地域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민가를 지표로 해서 또는 평면을 지표로 해서 지역 구분을 한 문화지역 구분은 하나의 민중

문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민가의 여러 요소의 분포는 문화 확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지역을 비교해서 그 특색을 찾아야 한다. 한국민가를 분류하는 한 방법으로 대들보 아래의 방 배열에 따라서 한 줄로 배치된 홑집과 두 줄로 배치된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에서 홑집은 서부와 남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겹집은 북동부와 태백산맥의 양 사면에 분포되어 있다(張保雄, 1980).

일본 민가의 형식 분류(小川徹, 1984)에 의하면 標準型, 廣間型, 二棟造型, 그리고 原初型 등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일본 민가의 평면 분류(杉本尙次, 1977)는 標準型, 廣間型, 併列型, 妻入型(側入型), 高床型, 二棟造型(分棟型), 기타 등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겹집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의 標準型(田字型)과 廣間型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겹집과 일본 열도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광간형 및 표준형(전자형) 사이에는 평면의 구조에 있어서 유사점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한·일 양국의 민가 평면의 특색과 공통점을 하나 하나 고찰하려고 한다.

일본의 광간형 및 전자형과 한국 겹집과의 공통점의 하나는 평면 구성이 非對稱的으로 된 점이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민가 평면은 對稱的으로 구성된 점이 한·일의 것과 크게 다르다. 일본 민가의 몸체는 土間(지면 그대로의 부분)과 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민가의 겹집에서도 방의 부분은 온돌이 土床式이고, 부엌의 부분은 土間으로 되어 있다. 즉 양국 모두 片低床과 片土間으로 되어 있다.

일본 민가 평면의 주류를 이루는 광간형 및 표준형(전자형이라고도 함)은 한국의 겹집 분포지역과 위도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 한국의 겹집 중에서 5실형(일본의 광간형에 해당)은 한반도의 동북부 지방인 관북지방에 4실형(일본의 田字型 및 標準型에 해당)은 강원도 태백산맥의 양 사면에 분포되어 있다. 일본의 광간형도 한반도의 관북지방의 위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東北地方에 분포하고, 표준형은 일본 열도의 서남부에 분포하며 그 사이에 曲家が 분포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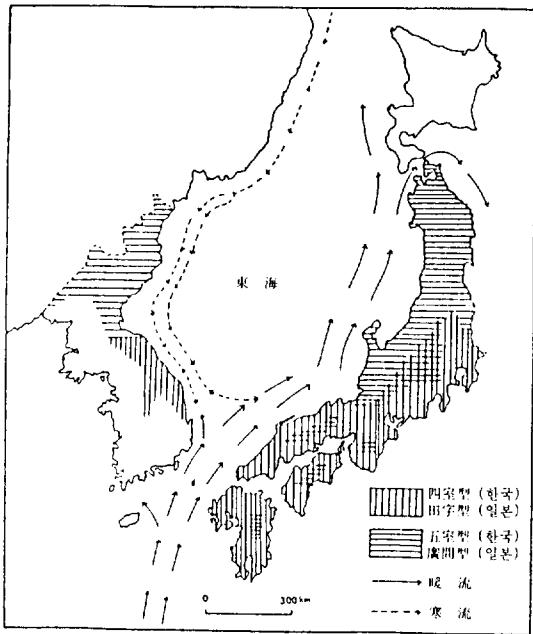


그림 1. 동해 주변 지역의 집집 분포도

위와 같은 현상은 유럽 제국의 식민지 확장에 그들의 국민이 해외 식민지에 정착할 때에 그들의 모국 자연 환경과 비슷한 장소를 택하는 원리와 동일한 발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대에 한반도의 관북 지방에서 해류를 타고 일본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그들의 모국 기후와 비슷 지방인 일본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지방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서남부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은 새로운 일본의 정착지에 그들이 한반도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복원해서 건축하고 거주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집집에서 5실형 민가 평면의 정지간과 일본의 광간형 민가 평면에서 廣間의 기능이 서로 유사하고, 또한 그것들의 위치가 평면 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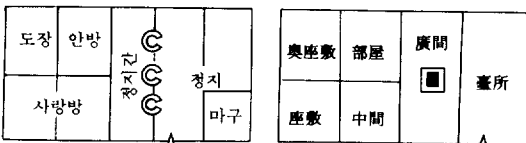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5실형(좌) 평면과 일본의 광간형 평면(우, 會津)

서 같다(그림 2).

일반적으로 五室型 民家에는 부엌과 방 사이에 넓은 온돌방인 정지간이 있고, 그리고 정지간과 부엌 사이에는 벽이 없다. 이 정지간은 부엌에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된다. 침실로도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식당으로도 이용되며, 또한 주부의 친우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서, 방중에서 가장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일본 민가에서 廣間의 기능은 취사, 식사, 가족 단란의 장소, 접객 공간도 겸하며 작업장이 되기도 한다. 즉 가족원이 가장 잘 이용하는 방이며, 민가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한국민가의 정지간과 일본 민가의 廣間은 그 공간의 위치와 기능이 매우 유사하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자는 온돌방이고 후자는 非溫突 방이라는 것 뿐이다.

정지간에 인접된 田字型의 방 배열과 각 방의 기능 및 그 위치에 있어서도 일본의 광간과 인접한 전자형의 방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을 우연히 일치된 현상이라고 보기 보다는, 고대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밀접한 관계 및 문화의 확산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문화의 확산은 한반도로부터 일본 열도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대에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된 문화는 거의 없으나, 역의 방향으로 확산된 문화의 량과 내용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가에는 온돌의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일본의 민가에는 왜 온돌이 보급되지 안했는가라는 문제는 6장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한반도에 있어서 5실형의 남쪽에 4실 曲家型 민가가 분포하고, 일본에서도 廣間型의 남부에 曲家が 분포하고 있어서, 그 분포 지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각각의 평면 구조도 매우 유사하다(그림 3). 즉 양국 민가의 몸체에서 돌출된 부분을 공통적으로 馬廐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4실형은 몸체에서 마구가 돌출한 曲家和 몸체의 용마루와 마구가 평행한 直家로 분류된다. 대략 江陵과 原州를 연결한 선을 경계로 북가는 북부에 직가는 남부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집집의 曲家 분포 지역 서쪽에 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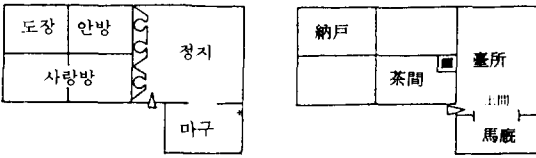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曲家(좌, 강원도 명주군)와 일본의 曲家(우, 陸中 紫波郡)

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중부지방은 접집 및 홑집의 曲家가 분포하는 지역이 된다. 접집의 경우는 몸채의 규모도 비교적 크며, 여러 기능 공간이 몸채 내부에 집중되어 있고, 마구는 內廐式이다. 따라서 부속 건물의 발달이 빈약하다.

한국의 접집 4실형(전자형과 동일함) 직가는 곡가의 남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곡가 분포 지역의 서남 부에 전자형(표준형이라고도 함)이 분포되어 그 분포의 상대적 위치가 비슷하다. 그리고 그 평면의 분할도 양국의 것이 유사하게 되어있다(그림 4).

민가 내부의 공간 기능도 서로 유사하며, 한국의 4실형이 흙바닥의 부분과 방으로 된 온돌 부분의 면적이 각각 균등하게 구분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전자형 평면과 매우 동일한 구조로 되었다. 4실형에는 4개의 방 크기가 동일한 전자형의 整形과 전자형이기는 하나 방의 크기가 다르고 어긋난 田字로 된 不整形(그림 5)이 있는데, 일본 전자형의 경우에도 두형이 병존하고 있으며, 후자를 食違型이라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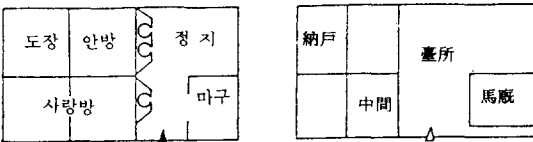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4실형(좌, 강원도 삼척군)과 일본의 전자형(우, 岡山縣 英田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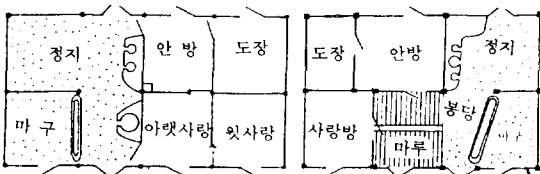


그림 5. 4실형 直家에서 整形(좌)과 不整形(우, 慶北 盈德郡 蒼水面)

4실형의 평면 구성 요소는 정지·마구·안방·사랑방·도장 등이다. 정지는 몸채의 평면에서 반의 면적을 차지하는 넓은 공간이며, 여기는 취사·작업장·연료 저장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정지의 벽은 판자로 만들어졌다. 마구는 몸채 안에 있거나 혹은 접속되었고 대부분 內廐式으로 되어 있다. 안방은 주로 주부가 사용하는 공간이며, 외부 남자의 출입을 금하는 공간이다. 접집의 분포 지역에서는 사랑방을 別棟에 만들지 않고 몸채에서 1~2개의 방을 사랑방으로 사용한다. 사랑방은 주인의 주간 거실과 접객의 공간이 된다. 도장 혹은 도장방은 고방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일본의 田字型 민가 평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그 기능을 고찰하면서 한국의 것과 비교해 보자. 그림 6(杉本尙次, 1971)에서 E는 土間(흙바닥의 공간)으로서 한국민가의 정지에 해당하는 가장 넓은 공간이다. F는 마구이며 內廐式이다. A는 데이(デ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며 본래 접객의 기능을 갖는 방이다. 즉 한국의 사랑방에 해당한다. B는 주로 주부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臺所라 부르고, 취사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다. C는 座敷이라 부르는 방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이 거처하는 방이 되기도 한다. D는 納戸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접집의 도장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한·일 양국의 전자형 민가의 구조와 그 기능을 비교하였는데, 너무도 유사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 기원의 민가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일본인 학자들이 일본 민가와 한국 민가와와의 비교 경우를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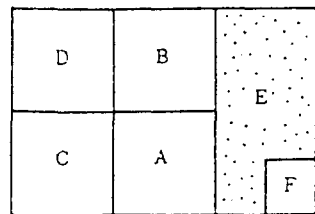


그림 6. 일본 전자형 민가의 평면

### 3. 측입 민가의 비교

지붕의 용마루와 민가의 前面이 평행할 때는 前入民家(일어로는 平入民家)라 하고,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민가 형태이다. 그러나 지붕의 용마루와 민가의 전면이 수직이 될 때는 민가의 입구가 지붕의 側面 방향에 있기 때문에 側入民家(일어로는 妻入民家)라 부르기도 한다(張保雄, 1976). 한반도에서 이 측입민가는 4실형 直家の 분포 지역 남부에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분포 지역의 행정지명은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리와 동군 원덕면 동활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측입 민가의 분포는 매우 적고 대부분의 민가는 前入型이며, 그리고 側入民家は 빠른 속도로 前入 民家化 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 한반도에 측입 민가가 존재한다는 연구 보고가 전무했고, 측입이라는 용어도 없었으며, 이 용어는 필자가 1973년에 신리의 민가를 조사 연구하면서 만든 新造語이다.

한반도에서 측입민가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발생되어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는 문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경남 지방에서 출토된 신라의 家形 토기에서 側入型의 高床倉을 볼 수 있다(金元龍, 1969). 따라서 건물에 있어서 측입형의 출현은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측입 민가는 4실의 전자형과는 다른 文化層의 민가로서 과거에는 신리와 동활리 밖에도 넓게 분포되어 있었음을 현지 답사에 의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4실 전자형의 전래와 그것들의 잠식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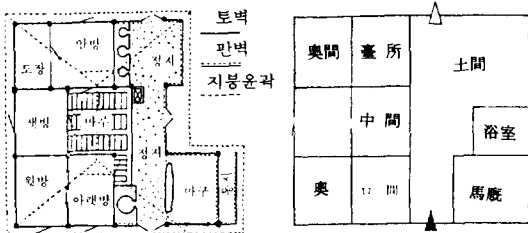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의 측입형(좌, 강원도 삼척군)과 일본의 妻入型 평면(우, 大阪府 豊能郡)

서 현재는 몇 집 안되는 측입 민가가 화석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잔존하는 측입 민가의 수는 적은 편이며, 滋賀縣 伊香郡의 측입민가에 관한 상세한 연구(藤田元春, 1937)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러한 민가는 기원전에 형성된 古形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즉 양국 측입 민가의 첫째 공통점은 그 발생 연대가 오래된 민가의 잔존형이라는 것이다. 둘째의 공통점은 양국의 측입 민가 평면이 유사한 점이다(그림 7).

한국의 측입 민가 평면은 안방·사랑방·도장·셋방·마루·정지·馬廐 등이다. 마루는 9칸의 측입 민가에는 있으나, 4칸의 측입 민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측입 민가의 전체적인 평면은 대략 정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평면에 있어서는 1번 2칸의 4칸형 평면과 1번 3칸의 9칸형 평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위의 두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의 일본 사례는 大阪府 槻北단의 陵勢町 天王部落의 평면이다(杉本尙次, 1971). 한반도의 9칸형 민가의 평면과 매우 유사한 평면 구조이다.

### 4. 마구의 비교

한국의 겹집형 민가의 대부분과 일본의 민가에 있어서 馬廐는 몸채 내부에 있거나 정지에 연결된 內廐式이다. 즉 부속사에다 마구를 만들지 않고 몸채 공간의 일부에 마구를 만든 경우를 내구식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의 민가에서 몸채 내에서 기르는 가축은 돼지(猪間)와 닭(鶏間) 정도이고, 우마는 반드시 別棟에서 기르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는 外廐式이다. 현재 한일 양국의 마구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소뿐인데도 牛廐라 부르지 않고 馬廐 또는 마구간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양국이 모두 마구라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소보다도 말을 많이 사육했거나, 소보다도 말을 먼저 가축으로 사육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正倉院에 있는 신라 촌락문서의 연구(旗田魏, 1968)에 의하면 당시 신라 촌락에서는

1호당 평균 馬 1두 반과 牛 1두를 사육한 것으로 되어 있다. 馬는 軍馬로 또는 교통과 운송에 사용되었으리라 추측되며, 農耕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牛는 농경에 사용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각 농가에 馬의 사육을 권장했으리라 생각되며, 삼국시대부터 마구라 불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차 더욱 상세하게 연구되고 고증되어야 할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내구식은 겨울이 한랭하고 적설량이 많은 산지에 많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가축의 관리에 편리하고 부역의 餘熱로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보면 온난한 서남부 일본 열도의 농가에서도 內廐式이 대부분이고 한국의 전남 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홋집에서도 부역의 반대편 끝에 마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중국의 동북 지방에는 外廐式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환경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일 양국의 내구식은 자연 환경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생활양식 내지 문화의 동일 기원과 확산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5. 마루 유무의 비교

동부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민족의 민가 중에서 마루라 부르는 공간의 유무와 그 기능을 비교하면서 그 마루의 기원지와 확산의 경로를 고찰하려고 한다. 한국 민가의 홋집형에는 대체로 마루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곁집형(5실형과 4실형)에는 마루라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루를 지표로 한 한국 민가의 분류도 가능하다. 즉 한국의 민가를 마루가 있는 민가와 마루가 없는 민가로 2대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민가에는 마루라 부르는 공간이 없으나, 한반도 북방의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어떤 소수 민족은 민가 내부에 마루라는 공간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는 각각의 민가에서 마루의 유무와 그 위치 그리고 그 기능에 관해서

비교 고찰하려고 한다.

마루라고 하면 판자를 편 방을 연상하기 쉬우나, 판자가 보급되기 이전의 흙바닥의 경우에도 그 공간의 기능에 의해서 마루라 호칭하였다. 마루의 본래 기능이 전라남도 도서 지방의 민가에 잔존하고 있다(張保雄, 1986). 전남 지방의 방언으로 “마루”를 “말래” “말리”, 또는 “마리”라 한다. 그리고 “마루방”이라고 “방”이라는 語尾를 붙이지 않는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의 민가에서 마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기능은 3~4代祖까지 조상의 位牌를 모시는 곳이다. 이 위패는 “독”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서 먼지가 앉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독”은 감실장에 넣어서 보관한다. 감실장은 마루 입구의 맞은편 벽 중간에 설치되어 있다. 조상의 제사도 반드시 마루에서 지낸다.

둘째, 마루에는 반드시 “성주 단지” 혹은 “성주 동우”라는 家宅神을 모시고 있다. 매년 가을에 햅쌀이 나면 성주 동우에서 구곡을 쏘고 햅쌀로 갈아넣는다. 명절이나 제사일에는 성주 동우 앞에 상을 차려 놓고 성주 신에게 그 날의 제사에 관해서 먼저 고하고, 그 다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차린다. 城主는 집주인이고 조상은 촌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 평소에 성주에게 기원하는 내용은 집안의 화평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객지에 있는 가족이 하는 일이 잘 성취되도록 바라는 것 등이다. 우리가 일상 회화에서 산의 정상을 “산마루”,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을 “용마루”라 부르는데, 이 경우에 “마루”라는 뜻은 가장 높은 곳, 聖스러운 곳 등의 의미로 쓰인다. 실제로 청산도의 주민들은 마루 공간을 집안에서 가장 깨끗한 곳, 즉 聖所로 여기고 있다. 마루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하절의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따라서 마루는 가족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루방”이라 하지 않고 “마루”라고만 부르는 것이다.

셋째, 마루는 곡물의 저장고로 사용된다. 곡물을 담은 크고 작은 항아리가 7~9개 마루에 놓여 있다. 마루는 곡식을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에 우물 마루 형태로 널을 펴고 防濕과

除濕이 되도록 고안한 것이다. 마루의 출입문은 통널로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창도 없다. 마루의 내부 공간은 採光이 불량하여 어둡고 컴컴하다. 마루의 가택 수호신 및 조상의 位牌를 모시는 성소로서의 기능과 곡물 저장 기능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비교적 멀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北통구스족의 천막 내에서 입구 정면의 맞은편 바닥을 토착어로 malu 또는 maro라 부르고 있다. 다른 定住 부족간에도 主室(간단하게 만들어진 중국식 가옥)의 입구 정면에 위치한 곳을 malu라 부르고 있다. malu라 부르는 자리는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앉지 않는 공간이다.

대흥안령과 소흥안령 산맥 중에 접재하는 오로촌족의 천막은 원추형의 모양인데, 그 내부(그림 8)는 3개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A座를 maro라 하는데, 입구의 정면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배후의 벽에 馬神과 家神이 걸려 있는 가장 신성한 자리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값이 나가는 毛皮가 깔려 있다. 이 곳은 신분이 높은 來客이 앉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가족은 앉지 않는다. 더욱이 여자는 절대로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막 밖에서도 이 곳의 뒤를 통과할 수 없다. B座는 일반적으로 명칭은 없으나 노부모의 자리

이고, C座 보다는 높은 자리이다. 같은 C座라도 maro에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가 된다. C座는 젊은 부부 및 자녀의 자리이고 입구 가까운 곳에는 취사 도구를 놓는다(泉踏一, 1972).

이상에서 北통구스족의 malu와 오로촌족의 maro, 그리고 靑山島 살림집의 마루가 다같이 민가 내에서 聖所라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마루계보도 한반도 북방의 시베리아 내지 중국의 동북 지방에 그 원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홑집의 유형이 북방에서 전래되면서 한반도의 서남부에 분포하게 되었고, 마루의 분포도 여기에 일치하고 있다. 일본 민가에 한국민가의 마루와 같은 기능을 갖는 방과 마루라 호칭되는 공간이 없는 것은, 한반도에 홑집이 전래되기 전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던 겹집이 일본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의 표준형과 광간형은 한국의 겹집과 함께 마루 공간이 없는 동일 계통의 민가이다.

## 6. 온돌과 이로리의 비교

일본 민가에는 취사·난방·조명·除濕 등의 기능을 갖는 위로리(圍爐裏)의 보급이 일반적이고, 濫突文化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온돌은 한국 민가에서 가장 보편적인 채난 장치로서 한국 문화의 구성 요소의 하나가 되어 있다. 또한 온돌은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의 거주 문화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역사적 존재로 되었다. 온돌 문화의 기원과 한반도로의 전파시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구명되어 있지 않다. 중국 동북 지방의 민가에는 한국의 온돌과 매우 유사한 칸의 설비가 되어 있다. 한국의 5실형에서 정지간을 칸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돌이 칸보다 먼저 발생하였는지 혹은 칸이 온돌보다 먼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온돌과 칸은 난방 방법이 비슷하므로 원래는 기원을 같이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변형되어 온돌과 칸으로 분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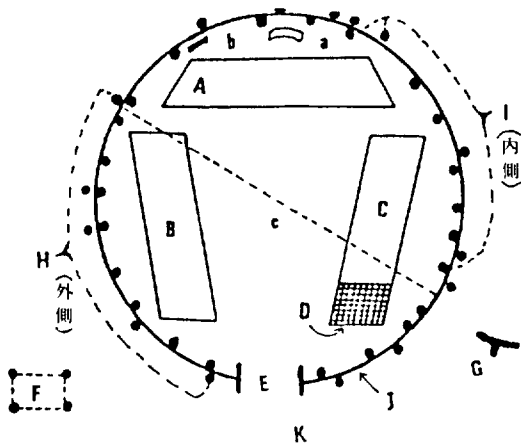


그림 8. 오로촌족의 천막 평면도

A. maro B. 老人座 C. 부인 및 어린이좌 D. 취사 도구 E. 입구 F. 창고 G. 건조대 H. 늘림 통나무 I. 기둥 J. 壁 K. 건조장



중국의 史書 중에서 舊唐書 권 199의 高麗條에 의하면 “冬月皆作長炕 下然熅 火以取暖이란 기록이 있다. 즉 고구려에서 겨울에는 모두 長炕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때서 暖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온돌의 난방 원리와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唐書 권 220에서 고구려에 관한 기록 중에 “冬作長炕熅 火以取暖”라는 온돌에 관한 내용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진족들도 칸의 설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三朝北盟會編 권 3의 여진족에 관한 기록 중에 “環屋爲土床熅 火其下與寢食起居其上謂之炕 以取其暖”라는 내용이 있다. 즉, 집안에 벽을 따라 土床을 만들고 그 밑에 불을 때고 그 위에서 침식과 기거를 하는데 이것을 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한반도에서 북부의 고구려에는 長炕이라는 온돌의 설비가 있었으나 신라와 백제의 온돌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唐書 권 220의 新羅條에 “冬則作竈 堂中…”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즉 신라에서는 겨울에 집안에 솥을 엮을 수 있는 화덕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온돌이라기 보다는 이로리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남부를 점하고 있던 신라와 백제에 온돌문화가 전래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중세의 고려 시대에는 한반도 남부까지 온돌이 확산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러 제주도에도 전파되었다.

일본에 온돌 문화가 전파되지 못한 것은 고대에 있어서 한반도 중남부에 濫突文化가 전파되기 이전에 한국의 민가가 일본 열도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온돌의 설비가 없는 민가가 일본에 확산되어진 것으로 유추된다.

온돌의 축조 기술은 한반도의 북부 지방에서 발달하였으며, 남으로 내려갈수록 발달의 정도는 빈약해지고, 일본에서는 그 모습조차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간단히 기후와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면 곧 벽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동북지방은 한반도의 북부 지방과 대략 비슷한 위도에 있고 겨울에는 매우 한랭함에도 불구하고 온돌을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 온돌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문화를 일본인이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대체로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는 자국의 자연 환경과 생활양식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로리 문화가 외래의 온돌 문화보다도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온돌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름동안의 긴 梅雨期에 습기를 제거하는 경우와 겨울에 난방의 경우, 양쪽 모두에 편리한 것으로 온돌보다는 이로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목조 건물이 많은 일본에서는 방 밑으로 불과 연기를 통과시키는 온돌보다도 火氣에 안전한 이로리를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로리 문화가 온돌문화의 수용을 거부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반대의 현상으로는 제 2차 대전 직후 한반도에서 일본인이 귀국하자, 일본식 주택에 입주한 한국인들은, 먼저 방에서 다다미를 들어내고 온돌방으로 개조를 시작했다. 즉, 한반도에서 다다미 문화가 온돌 문화에 의해서 사라진 예가 된다.

## 7. 별동형의 비교

거주 부분의 몸체와 취사 기능을 갖는 부엌채(제주도 방언으로는 정지끄리)를 분리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경우를 別棟型이라 부르기로 한다. 일본 학자들은 二棟造型 또는 分棟型이라 부르는데, 대체로 2동 조형으로 호칭을 통일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별동형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으며,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의 제도에도 분포되어 있다. 이 별동형 민가와 제주도 민가와와의 관련을 고찰하기 전에 일본의 서남제도에 많이 분포된 별동형의 특징에 관해서 고찰해보자.

일반적으로 별동형은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취침과 起居의 공간인 거주 전용의 건물이며, 다른 하나는 판자를 편 경우와 흙바닥 그대로의 경우가 있는데, 후자는 흙으로 부뚜막을 만들어 놓은 취사 전용의 건물이다. 전

자를 主棟, 후자를 副棟이라고 부르며, 이 두 건물이 하나의 別棟型 민가를 형성한다. 부동을 주요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취사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취사장과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취사장 식당 작업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있다(宮澤知士, 1984).

主棟과 副棟의 관계에서 별동형을 분류해 보면, 첫째 主棟과 副棟을 분리 독립시켜 배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주동과 부동을 근접하게 건축하고 그 양자 사이를 복도로 연결하는 경우, 셋째 주동과 부동을 나란히 건축하고 물받힘으로 양쪽 지붕의 물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일본에서 別棟型의 분포는 서남 제도를 비롯하여 黑潮의 영향권인 남부 일본에 넓게 나타나며, 이와 유사한 거주 형식이 동남 아시아 각지와 오세아니아 제도 등 環太平洋 연안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도 黑潮의 유역에 포함됨으로 별동형 민가의 분포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에 속한다. 필자는 1972년에 琉球列島の 민가를 현지에서 조사한 바 있고, 이어서 1973년에 제주도 민가에서 남방적 요소를 조사하면서 별동형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제주도 민가중에 별동형이 있음을 한국에서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 있어서 별동형은 근대 이후에 그 형식이 점차로 약화되고 근대화 와 함께 그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도 별동형 역시 그 수가 점차 감소하여 소멸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별동형 민가는 한국 민가에서 남방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는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의 하나가 됨에는 틀림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가에서 취사 공간, 가족이 취침하는 공간,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 등이 안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비해서, 취사 공간을 별동에 만든다는 것은 역시 생활양식의 차이 또는 문화의 차이에 의한 거주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태평양 연변을 접하고 있는 제주도에는 민가 이외에도 많은 남

방적 문화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주도 민가에서 非別棟型의 경우라도 정지에서 취사할 때에 사용하는 연료의 여열을 온돌에 넣지 않고 밖으로 방출하는 것도 반도부와 다른 취사의 형식이다. 반도부에서는 부엌에서 취사한 여열로 온돌방을 난방하기 때문에 안채에서 정지를 분리시켜 별동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

한국의 접진은 고대에 있어서 일본의 민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한반도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것이 일본의 廣間型 내지 田字型인데, 제주도의 민가에서 別棟型은 역으로 남방에서 북방으로 문화가 확산된 결과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면 안끄리(안채)에 큰 구들, 작은 구들, 고팡, 상방 등의 공간이 점하고, 취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은 정지끄리(취사동)에 별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바끄리(바갈채)에 말막(馬廐)과 헛간 등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제주도의 古老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더 많은 별동형의 민가가 넓게 분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외래 문화가 수용되면 상당 기간 동안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서 防火 시설도 잘 되고, 방화에 대한 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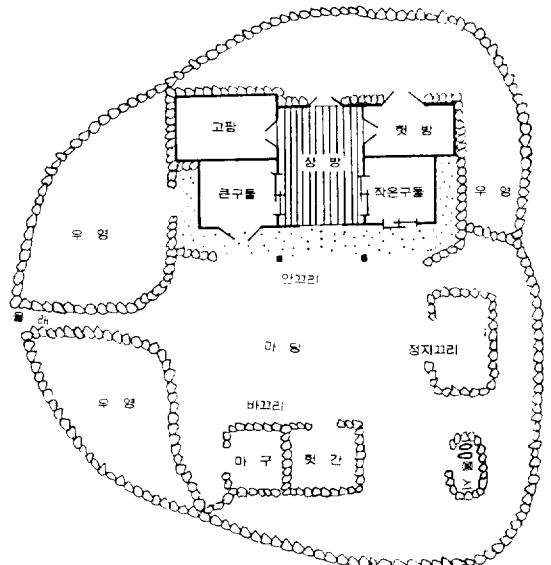


그림 9. 제주도의 별동형 민가(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

공간이 안끄리 내부에 발생하게 되었고, 남방에서 전파된 별동의 정지끄리는 제주도에서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부엌 한쪽에 솥을 걸고 연기를 직접 밖으로 빼는 구조로 만들어진 약간 높은 화덕을 사용하나, 동남 아시아와 일본의 서남방 제도에서는 큰 돌을 세 개 놓고 그 위에 솥을 얹고 불을 지피는 구조의 솥걸이 형태로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도 정지끄리 또는 안끄리의 정지에는 자연석을 셋 놓고 그 위에 솥을 놓고 취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제주도 민가의 별동형, 돌을 셋 놓고 솥을 얹는 솥걸이 형태, 통시와 돼지울의 미분리 상태 등은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 아시아, 그리고 일본의 서남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 전파의 주요 루트는 黑潮의 流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시료된다.

## 8. 요약 및 결론

한·일 양국의 민가에서 평면을 비교하고, 내구식과 외구식을 비교하고, 마루 유무를 비교하고, 온돌 문화와 이로리 문화를 비교하고 그리고 제주도 별동형 민가를 일본의 서남 제도의 것과 비교하였으며, 그 내용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의 겹집 5실형 민가와 일본의 광간형은 그 평면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것들이 분포하는 위치도 양국의 東北部 地方이다. 한반도의 4실형 민가와 일본의 전자형(또는 표준형)의 평면 구조와 그 기능이 같고, 양국에서 분포하는 지리적 위치도 모두 5실형(일본의 광간형)의 남부에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5실형과 4실형 사이에 곡가가 있고, 일본에서도 광간형과 전자형 사이에 曲家が 분포되어 있으며, 그리고 양국의 곡가에서 앞으로 돌출한 공간을 모두 마구로 사용하는 공통점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민가는 겹집과 홑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로 전자는 내구식이고 후자는 외구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겹집과 일본의 廣間型과 田字型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양국에서 모두 내구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양국의 내구식은 자연 환경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생활양식 내지 문화의 동일 기원에 의한 확산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민가를 마루가 있는 홑집과 마루가 없는 겹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보면 전자의 마루는 외래적인 것이며, 따라서 겹집이 한반도의 토착적인 것 혹은 고유한 것이며 홑집은 후에 북방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廣間型과 田字型은 한국의 겹집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며, 한국민가의 마루와 같은 기능을 갖는 공간이 없고, 또한 마루라 부르는 공간의 호칭도 없다. 한국의 겹집과 일본의 민가에는 마루가 없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 역시 동일 기원에 의한 전파의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일본의 민가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일본인 학자 중에는 그러면 왜 일본 민가에는 온돌이 없느냐고 반문하는 학자도 있다. 온돌 역시 한반도에서 발생된 문화가 아니고 북방에서 전래된 것이며, 한반도에 온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일본으로 민가가 전파되었으며, 만약에 온돌이 일본에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다습한 자연 환경, 그리고 목조 건물 등에 의해서 온돌을 수용하지 않고, 재래의 이로리로 온돌을 대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민가에 온돌이 없다는 사실로 일본 민가가 한반도에서 확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한국 민가의 여러 요소가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반대로 남방적인 문화 요소도 해류를 통해서 북상한 경우도 있다. 그 예의 하나가 제주도 민가에서 볼 수 있는 別棟型이다. 이와 같은 별동형은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일본의 남서 제도에 많이 분포하는 형이다. 이러한 黑潮의 流向과 관계가 많다.

일본 민가의 원류와 계통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주변 지역과의 비교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가의 원류 및 그 계보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주변 지역과의 비교, 특히 북방, 몽고, 중국, 그리고 남방 등지와와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일 민가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민가의 골격을 형성하는 평면의 구조와 그 공간 기능 등이 한반도의 것과 유사한 것을 보면, 일본 민가를 구성하는 외래 문화의主流과 源流는 한반도에 있으며, 여타 일본의 주변 지역은 支流 내지 分流적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공통의 민가 평면이 東海를 둘러싸고 분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이것을 環東海文化圈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생각되고, 한·일 양국의 민가는 동일 기원지에서 전파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동일 문화 계통에 속하는 민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민가는 한반도에 起源地와 源流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投稿 1994년 3월 9일)

### 文 獻

- 朱元哲, 1975,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서울.
- 宮澤知土, 1984, “分棟型民家は南方系か,” 日本  
のすまいの源流, 文化出版局, 東京, 73-75.
- 今和次郎, 1989, 日本の民家, 岩波書店, 東京.
- 旗田魏, 1968, “新羅の村落” 歴史學研究, 227,  
1-13.
- 藤田元春, 1937, 日本民家史, 刀江書院, 東京,  
129-236.
- 杉本尙次, 1970, “民家地理,” 文化地理學, 朝倉  
書店, 東京, 174-178.
- 杉本尙次, 1971, 近畿地方の民家, 明玄書店, 東  
京, 142-144.
- 杉本尙次, 1977, 地域民家, 明玄書店, 東京, 71-  
88.
- 小川徹, 1984, “わが國民民家形成とその發展系  
譜,” 日本のすまいの源流, 文化出版局, 東京,  
23-42.
- 張保雄, 1976, “韓國の妻入民家小考,” 地理科學,  
24, 1-8.
- 張保雄, 1984, “韓日民家の比較,” 日本のすあみ  
の源流, 文化出版局, 東京, 306-317.
- 泉靖一, 1972, 泉靖一著作集(1), 讀賣新聞社,  
東京, 15-17.
- Hall, R.B., 1926, Quelpart Island and Its  
People, *Geographical Review*, 16(1), 60-72.
- Nishi Midori, 1969, Regional Variations in  
Japanese Farmhouses, *Annals of A.A.G.*, 57  
(2), 211-238.
- 金元龍, 1969, “新羅 家形 土器考,” 金載元博士  
回甲 紀念論叢, 847-864.
- 尹長燮, 1975, 韓國建築史, 一志社, 서울.
- 張保雄, 1974, “濟州島 民家の 研究,” 地理學,  
10, 13-31.
- 張保雄, 1978, “靑山島 民家の 文化地理學的 研  
究,” 地理學, 18, 34-45.
- 張保雄, 1980, “韓國의 民家型 分類와 文化地域  
區分,” 地理學, 22, 41-58.
- 張保雄, 1981, 韓國의 民家 研究, 寶晉齋出版社,  
서울, 217-222.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plan in Folk Houses of Korea and Japan

Bo-Woong Chang\*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raditional folkhouses of Japan in connection with those of Korea. Japanese folkhouses have received much influence from the Korean Peninsular, mainland China, northern Asia and Southeast Asia. The writer believes that the main stream of folkhouse culture originated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flowed into the Japanese Islands.

There are many striking similarities in the folkhouses of Korea and Japan. Firstly, double-row room houses are distribu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all parts of the Japanese Islands, and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five-room type and four-room type. These types are very similar in both

nations in the aspects of floorplan and distributing patterns. Because floorplan may be used as an indicator of culture regions and cultural diffusion both, nations are believed to be closely related in the interchange of cultures in ancient times.

Secondly, stables are allocated to the main house, and they are called "magu" in common. "Magu" means horse stable, but there are no horses in it. In ancient times, however, many horses were kept in "magu" in both countries. Thirdly, there are much similarities in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folkhouses of both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folkhouses of Japan could be explained as the result of cultural diffusion from the Korean Peninsular.

**Key Words:** floor-plans, double-row house, single-row room house, floor(MALU), stable (MAGU), cultural diffusion.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am National University.